

The Effects of the Image of God on Spiritual Maturity in Catholic Young Adults: The Mediating Effect of Religious Coping

Jikhan Woo¹, Joonmo Yun^{2*}

^{1,2}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image and spiritual maturity among Catholic young adult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religious coping in this relationship.

[Conten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participants were Catholic men and women aged 19 to 39 years. A total of 401 responses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measuring God image, religious coping, and spiritual maturi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and the PROCESS Macro to conduct correlation analyses and mediation analyses.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God imag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spiritual maturity,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ositive religious coping, an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negative religious coping. Positive religious coping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image and spiritual maturity, whereas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religious coping was not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promoting the spiritual maturity of Catholic young adults, pastoral counseling and spiritual guidance that focus on fostering a positive God image and strengthening positive religious coping may be more effective than approaches that merely aim to reduce negative religious coping.

[Keywords] God Image, Religious Coping, Spiritual Maturity, Catholic Young Adults

* **Corresponding author** Joonmo Yun (Associate Professor, Teachers College, Jeju National University)

E-mail : pedagogy@jej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가톨릭 청년들의 하느님 이미지가 영적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종교적 대처의 매개효과

우직한¹, 연준모^{2*}

¹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대학원생, ²제주대학교 초등교육학부 부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톨릭 청년들의 하느님 이미지와 영적 성숙도의 관계에서 긍정적·부정적 종교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 신자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느님 이미지 척도, 종교 대처 척도, 영적 성숙도 척도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401명의 자료는 SPSS 25.0과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관분석과 매개효과 검증 중심적으로 분석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하느님 이미지는 영적 성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긍정적 종교 대처와는 정적 상관, 부정적 종교 대처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긍정적 종교 대처는 하느님 이미지와 영적 성숙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 반면, 부정적 종교 대처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톨릭 청년들의 영적 성숙을 증진하기 위해 부정적 대처를 감소시키는 접근보다, 긍정적인 하느님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긍정적 종교 대처를 강화하는 사목 상담 및 영적 지도 개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하느님 이미지, 종교 대처, 영적 성숙도, 가톨릭 청년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Received February 15, 2026 / Revised March 13, 2026 / Accepted March 19, 2026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청년기는 가치관과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중요한 전환기로,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신앙 정체성 또한 이 시기에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청년기의 신앙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인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질풍노도(Sturm und Drang)’의 시기로 이해되며,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심리·사회적 혼란이 심화되는 시기이다(Petersen, 1988: 588-590). 이 시기 청소년들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반항적 경향을 보이기도 하며(Song, 2017: 1), 인지 발달의 진전에 따라 기존 가치와 권위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면서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도 갈등과 회의를 경험할 수 있다(Fowler, 1981: 182-183). 이러한 발달적 경험은 이후 청년기에 나타나는 신앙 변화의 배경이 되며, 개인의 신앙이 약화되거나 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Allport, 1950: 100-102).

이와 같은 발달적 맥락 속에서 가톨릭 청년들은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형성된 신앙 가치와 청년기에 직면하는 사회적·현실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며 ‘신앙의 재조정기’를 거치게 된다(Song, 2009: 22-24). 이는 외재적이고 규범적인 신앙이 내재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으로 전환되는 ‘신앙의 자기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Fowler, 1981: 183).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기존에 수용해 온 신앙 체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자신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통합하려는 노력을 경험하게 된다.

한국 천주교회 통계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가톨릭 청년들의 주일 미사 참여율은 약 5% 이하로 전체 연령 평균 1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25: 37). 또한 서울대교구 청년부의 조사에서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으로 시간 부족과 세속적 가치와의 갈등이 주로 제시되었으며, 교회에 대해서는 정신적·심리적 위안과 확고한 신앙 가치의 제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tholictimes, 2012. 2. 20.). 이는 사회 진입 과정에 놓인 가톨릭 청년들이 신앙과 현실 사이의 긴장 속에서 영적·심리적 지지를 요청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년기의 신앙 유지와 영적 성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적 신앙 행위의 감소라는 현상적 차원을 넘어, 개인의 내면에서 작동하는 종교 심리적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들이 하느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경험하는가는 신앙의 지속 여부와 질적 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교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내면적 신앙 경험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로 ‘하느님 이미지(God image)’에 주목해 왔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하느님 이미지는 개인의 신앙 행동 및 심리적 안녕과 유의한 관련을 보이며(Choi, 2005; Hwang, & Song, 2012; Kim, & Hwang, 2012; Park, 2000), 긍정적인 하느님 이미지를 지닌 청년은 신앙을 유지하고 삶의 갈등을 신앙적으로 통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부정적인 하느님 이미지는 가치 충돌 상황에서 신앙적 회

의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Hwang, & Song, 2012: 270-271).

특히 청년기는 학업, 진로, 관계 형성 등 다양한 발달 과업과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는 시기로, 이들이 위기 상황을 어떠한 신앙적 틀 안에서 해석하고 대응하는가는 영적 성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즉 하느님에 대한 심리적 표상은 위기 상황에서의 신앙적 대응 방식과 맞물려 구체적인 신앙 행동과 영적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종교심리학의 연구는 영적 성숙의 과정적 기제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종교 대처(religious coping)에 주목하고 있다(Cho, 2009; Cho, 2020; Choi, & Kim, 2015; Park, Lee, & Hyun, 2012). 종교 대처는 개인이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과 실천, 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긍정적 종교 대처와 부정적 종교 대처로 구분된다(Pargament, Koenig, & Perez, 2000: 520). 긍정적 종교 대처는 하느님의 뜻을 탐색하며 상황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인 반면, 부정적 종교 대처는 하느님의 부재나 처벌로 상황을 인식함으로써 신앙적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Je, 2002: 32).

이에 본 연구는 신앙의 재조정기에 놓인 가톨릭 청년들의 영적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하느님 이미지와 종교 대처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하느님 이미지와 영적 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종교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가톨릭 청년들의 영적 성숙에 작용하는 기저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목 상담 및 영적 지도 현장에서 가톨릭 청년들의 영적 성숙을 돕는 실천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하느님 이미지

하느님 이미지는 감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대상은 아니지만, 신앙인에게 하느님을 살아 있는 실재로 경험하게 하는 ‘내적 표상’이다(Rizzuto, 1979: 47-48). 이는 계시된 하느님 자체라기보다 개인이 체험과 관계 속에서 형성한 심리적 실재로서의 하느님을 의미하며, 하느님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주관적 경험을 포함한다(Meissner, 1984: 170-172).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지만, 개인이 형성한 하느님 이미지는 삶의 경험과 정서적 관계에 따라 변화하거나 왜곡될 수 있다(Kim, 2002: 280-281).

종교심리학적 관점에서 하느님 이미지는 생애 초기의 중요한 타자, 특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정서적 경험과 애착의 내면화된 표상으로 이해된다(Rizzuto, 1979: 177-180). 이러한 초기 양육 경험은 이후의 종교 경험과 하느님 이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Kim, 2002:

280-281), 발달 과정 속에서 개인의 인지적 성숙과 사회적 경험에 따라 점차 수정되고 재구성된다(Meissner, 1984: 52-55). 한편 개인이 형성한 하느님 이미지가 교회 공동체가 제시하는 교리적 이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내적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 가치관에 대한 재평가가 하느님 표상에 투사될 때, 이는 신앙 갈등이나 신앙적 거리두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Clair, 1994: 35-38).

또한 하느님 이미지는 개인의 심리적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하느님을 돌보고 보호하는 존재로 인식할 경우 삶에 대한 안전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는 반면, 처벌적이고 분노하는 존재로 지각할 경우 불안과 죄책감이 강화되어 불안정한 신앙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Rizzuto, 1979: 118-122). 실제로 하느님 이미지는 자존감, 대인관계 능력, 적응 유연성, 생활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Kim, & Hwang, 2004),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 Hwang, 2012; Ryu, & Hwang, 2006).

이처럼 하느님 이미지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은 종교를 심리 현상으로 환원할 위험을 지니기도 하지만, 개인이 체험하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신앙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실증적 통찰을 제공한다.

2. 영적 성숙도

영적 성숙도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신앙이 점차 통합되고 심화되어 가는 정도를 의미한다(Lee, 2017: 22).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신앙 수련에 참여하며, 자신의 신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되 교리주의에 머물지 않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일상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존재로 설명된다(Ellison, 1983: 331-338). 이러한 신앙인은 제도적 보호에 의존하지 않고도 신앙을 유지하며, 명확한 영적 목표를 지니고 하느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한다.

발달적 관점에서 영적 성숙은 인간이 궁극적 의미를 탐색하고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삶을 통합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Fowler, 1981: 180-183). 가톨릭 신학의 관점에서는 이를 단순한 인간적 성장 차원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이 통합되고 완성되어 가는 여정으로 이해한다(Cho, 2005: 35). 따라서 영적 성숙은 심리적·관계적 차원과 신앙적 차원이 상호 통합되는 전인적 성장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가톨릭 신자의 영적 성숙도는 일반적으로 ‘신에 대한 신뢰’, ‘타인과의 관계’, ‘개인 내적 자원’이라는 세 차원이 상호보완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으로 개념화된다. ‘신에 대한 신뢰’는 하느님에 대한 인식과 의지, 하느님과의 관계 경험을 포함하는 차원이며, ‘타인과의 관계’는 종교적 실천과 봉사, 공동체와의 유대를 통해 드러나는 관계적 차원을 의미한다. ‘개인 내적 자원’은 자기 이해를 토대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통합해 가는 내적 역량을 가리킨다(Lee, 2017: 63-67).

실증 연구에 따르면 영적 성숙도는 자존감, 대인관계 적응, 심리적 안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Kim, 2004; Park, 2005), 하느님 이미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05; Hwang, & Song, 2012). 또한 우울과 자살 사고와는 부적 상관이 보고되어(Jung, 2013), 영적 성숙도가 개인의 정신건강과도 깊이 연관된 개념임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영적 성숙도는 단순한 종교적 헌신 수준을 넘어 신앙과 삶이 통합된 전인적 성장의 지표이자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종교 대처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경험되는 현상으로, 개인의 사고·정서·신체적 균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Lee, 2012: 15). 개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인지적·행동적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를 대처라 한다(Ban, 2006: 141). 이러한 대처 방식의 선택은 상황에 대한 적응 수준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Kim, 2009: 18-19). 이와 같은 대처 과정은 종교적 맥락에서도 나타난다. 종교 대처(religious coping)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스러운 것(the sacred)과 관련된 방식으로 삶의 스트레스 사건을 이해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Pargament, 1997: 90-92). 선행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종교를 주요 대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Pargament, Koenig, & Perez, 2000: 520-522).

종교 대처는 긍정적 종교 대처(positive religious coping)와 부정적 종교 대처(negative religious coping)라는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된다. 긍정적 종교 대처는 하느님의 도움을 신뢰하거나 종교 공동체의 지지와 기도를 통해 의미를 찾는 방식이며, 부정적 종교 대처는 하느님에 대한 분노나 영적 갈등을 경험하며 스트레스 상황을 처벌이나 버림의 의미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두 유형의 종교 대처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영적 성장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gament, Smith, Koenig, & Perez, 1998: 711-712).

실증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종교 대처는 정신건강과 영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정적 종교 대처는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n, 2018: 95-96). 또한 종교 대처는 정신건강 및 영적 안녕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Kim, 2020: 50; Jung, 2017: 39), 종교성의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즉 내재적 종교성향은 긍정적 종교 대처와, 외재적 종교성향은 부정적 종교 대처와 각각 상관성이 확인되었다(Cho, 2020: 34-36).

이처럼 종교 대처는 위기 상황에서 신앙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적 변인으로서 개인의 영적 성숙과 심리적 적응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4. 하느님 이미지, 종교 대처, 영적 성숙도의 관계

기존 연구들은 하느님 이미지, 종교 대처, 영적 성숙도가 각각 신앙인의 심리적·영적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해 왔다. 우선 하느님 이미지는 스트레스와 갈등 상황에서 신앙인의 내적 자원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Clair, 1994: 120-122; Ryu, & Hwang, 2006: 193), 위기 상황에서의 종교적 대응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하느님 이미지를 지닌 개인이 긍정적 종교 대처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진노하거나 징벌하는 하느님 이미지를 지닌 경우 부정적 종교 대처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Lee, 2009: 55).

한편 하느님 이미지와 영적 성숙도 간에는 일관된 정적 상관관계가 보고되었으며(Choi, 2005; Hwang, & Song, 2012), 긍정적 하느님 이미지를 지닌 청년들은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 수준에서도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종교 대처 역시 영적 성숙도 및 영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특히 긍정적 종교 대처는 정신적·영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Kim, 2020: 50).

이러한 결과들은 하느님 이미지가 위기 상황에서의 종교 대처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영적 성숙도와도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세 변인을 주로 개별적 상관관계 수준에서 다루어 왔으며 하느님 이미지와 영적 성숙도의 관계에서 종교 대처가 어떠한 과정적 기제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통합적 검증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하느님 이미지가 종교 대처를 매개로 하여 영적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가톨릭 청년의 영적 성장에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와 그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사목 상담과 영적 지도 현장에서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하느님 이미지, 종교 대처, 영적 성숙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하느님 이미지와 영적 성숙도의 관계에서 긍정적 및 부정적 종교 대처는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가톨릭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전국 각 성당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SNS를 통해 배포되었다. 설문 참여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윤리적 고려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40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응답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하느님 이미지 척도(Gorsuch Adjective Checklist: GAC)

하느님 이미지는 Gorsuch(1968)가 개발한 형용사 척도를 김지윤(Kim, & Hwang, 2012: 26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들은 성장 과정에서 학습한 인지적 개념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개인적 체험을 묘사하는 형용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총 3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경험한 적이 없다’(1점)부터 ‘아주 많이 경험하였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 범위는 38점에서 19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하느님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표 1> 하느님 이미지 척도의 문항 및 신뢰도
<Table 1> Items and Reliability of the God Image Scale

하위요인	문항	문항수	Cronbach's α
하느님 이미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8	.90

주. * 역채점 문항

2) 종교 대처 척도(The Brief Religious Coping Scales: Brief RCOPE)

종교 대처는 Pargament, Koenig, & Perez(2000)가 개발한 종교 대처 척도를 조혜운(Cho, 2008: 781)이 번안·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며, 긍정적 종교 대처와 부정적 종교 대처의 두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하위요인은 7문항씩 포함한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3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긍정적 종교 대처는 영적 연결과 지지 경험, 하느님과의 협력적 관계, 종교적 용서와 정화, 호의적 종교 재평가, 신앙적 관점의 추구 등을 포함한다. 반면 부정적 종교 대처는 하느님의 사랑이나 능력에 대한 의심, 하느님의 처벌로 상황을 해석하는 경향, 교회 공동체로부터의 소외감, 마귀의 소행으로 재해석하는 태도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긍정적 종교 대처가 .85, 부정적 종교 대처가 .83으로 나타났다.

<표 2> 종교 대처 척도의 문항 및 신뢰도
<Table 2> Items and Reliability of the Religious Coping Scale

하위요인	문항	문항수	Cronbach's α
긍정적 종교 대처	1, 2, 3, 4, 5, 6, 7	7	.85
부정적 종교 대처	8, 9, 10, 11, 12, 13, 14	7	.83
전체		14	.79

3) 한국 가톨릭 신자의 영적 성숙도 척도

영적 성숙도는 이찬(Lee, 2017)이 Ellison(1983)의 ‘영적 안녕감’ 척도의 천장효과(ceiling effect)를 보완하고, 한국 문화와 가톨릭 신자의 영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며, ‘신에 대한 신뢰’(10문항), ‘타인과의 관계’(8문항), ‘개인 내적 자원’(4문항)의 세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에 대한 신뢰’는 하느님과 관계 경험을 중심으로 신에 대한 인식과 의지, 하느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차원이다. ‘타인과의 관계’는 종교적 실천과 봉사, 공동체와의 유대 등 타인과 세상과의 관계적 측면을 반영한다. ‘개인 내적 자원’은 자기 이해를 토대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통합하는 내적 역량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점)까지의 6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표 3> 영적 성숙도 척도의 문항 및 신뢰도
<Table 3> Items and Reliability of the Spiritual Maturity Scale

하위요인	문항	문항수	Cronbach's α
하느님에 대한 신뢰	1, 3, 5, 7, 10, 11, 13, 15, 19, 22	10	.95
타인과의 관계	2, 4, 6, 8, 12, 16, 17, 20	8	.86
개인 내적 자원	9, 14, 18, 21	4	.77
전체		22	.94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5.0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으로 확인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로 검증하였다. 주요 변인의 수준과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하느님 이미지와 영적 성숙도의 관계에서 종교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절차에 따른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수행하였다.

IV.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총 401명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성별은 남자 164명(40.9%), 여자 237명(59.1%)으로 여성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 분포는 만 19세~24세 119명(29.7%), 만 25세~29세 149명(37.1%), 만 30세~34세 85명(21.2%), 만 35세~39세 48명(12.0%)이었다. 최종 학력은 중졸 1명(0.2%), 고졸 79명(19.7%), 대학 재학 85명(21.2%), 대졸 197명(49.2%), 대학원 졸업 이상 39명(9.7%)으로, 대졸 이상의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였다. 신앙생활 기간은 1년 미만 2명(0.5%), 1년 이상~5년 미만 54명(13.4%), 5년 이상~10년 미만 44명(11.0%), 10년 이상 301명(75.1%)으로 나타나,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지속한 응답자가 다수를 이루었다.

<표 4>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 401)

구 분		사례수(n)	비율(%)
1. 성별	남자	164	40.9
	여자	237	59.1
	전체	401	100
2. 나이	만19세~만24세	119	29.7
	만25세~만29세	149	37.1
	만30세~만34세	85	21.2
	만35세~만39세	48	12.0
	전체	401	100

<표 4>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계속)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 401) (continued)

구 분		사례수(n)	비율(%)
3. 최종학력	중졸	1	0.2
	고졸	79	19.7
	대재	85	21.2
	대졸	197	49.2
	대학원 졸업 이상	39	9.7
	전체	401	100
4. 신앙생활 기간	1년미만	2	0.5
	1년이상~5년미만	54	13.4
	5년이상~10년미만	44	11.0
	10년이상	301	75.1
	전체	401	100

2.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하느님 이미지, 긍정적 종교 대처, 부정적 종교 대처, 영적 성숙도 및 각 변인의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한 후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하느님 이미지는 긍정적 종교 대처($r=.49, p<.01$), 영적 성숙도($r=.65,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영적 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신에 대한 신뢰($r=.69, p<.01$), 타인과의 관계($r=.48, p<.01$), 개인 내적 자원($r=.34, p<.01$)과도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부정적 종교 대처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확인되었다($r=-.16, p<.01$).

긍정적 종교 대처는 영적 성숙도($r=.66, p<.01$) 및 그 하위요인인 신에 대한 신뢰($r=.67, p<.01$), 타인과의 관계($r=.51, p<.01$), 개인 내적 자원($r=.37, p<.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에 반해 부정적 종교 대처는 영적 성숙도 총점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요인 중 개인 내적 자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11, p<.01$).

<표 5>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the Study Variables (N = 401)

	1	2	3	4	4-1	4-2	4-3
1. 하느님 이미지	1						
2. 긍정적 종교 대처	.493**	1					
3. 부정적 종교 대처	-.159**	.066	1				
4. 영적 성숙도	.648**	.658**	-.066	1			
4-1. 신에 대한 신뢰	.690**	.673**	-.076	.911**	1		
4-2. 타인과의 관계	.475**	.510**	.010	.853**	.615**	1	
4-3. 개인 내적 자원	.343**	.373**	-.111*	.725**	.491**	.591**	1
평균	3.96	3.01	1.96	4.73	4.90	4.72	4.29
표준편차	0.48	0.63	0.69	0.74	0.94	0.75	0.93
왜도	-0.87	-0.68	0.56	-1.04	-1.14	-0.91	-0.46
첨도	1.02	0.59	-0.06	3.02	1.93	2.57	0.65

주. ** $p < .01$

3. 하느님 이미지와 영적 성숙도의 관계에서 긍정적 종교 대처의 매개효과

하느님 이미지와 영적 성숙도의 관계에서 긍정적 종교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하느님 이미지는 매개변수인 긍정적 종교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49$, $t=11.32$, $p<.001$), 설명력은 24.0%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하느님 이미지가 종속변수인 영적 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beta=.65$, $t=16.99$, $p<.001$), 영적 성숙도에 대한 설명력은 42.0%였다. 3단계에서 긍정적 종교 대처를 투입한 결과, 긍정적 종교 대처는 영적 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45$, $t=11.85$, $p<.001$), 동시에 하느님 이미지의 회귀계수는 ($\beta=.43$, $t=11.33$, $p<.001$)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2단계에서의 회귀계수($\beta=.65$)보다 작아진 것으로, 긍정적 종교 대처가 하느님 이미지와 영적 성숙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하느님 이미지는 영적 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긍정적 종교 대처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하느님 이미지가 영적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적 종교 대처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하느님 이미지가 긍정적 종교 대처를 매개하여 영적 성숙도에 이르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표 6> 하느님 이미지가 영적 성숙도에 미치는 효과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Table 6> Regression Analysis Examining the Effects of God Image on Spiritual Maturity
 (긍정적 종교 대처 투입) (N = 401)

단 계	독립 변인		종속 변인	B	SE	β	t	R ²	F
1단계	하느님 이미지	→	긍정적 종교 대처	.65	.06	.49	11.32***	.24	128.14***
2단계	하느님 이미지	→	영적 성숙도	1.01	.06	.65	16.99***	.42	288.58***
3단계	긍정적 종교 대처	→	영적 성숙도	.53	.05	.45	11.85***	.57	264.96***
	하느님 이미지	→		.66	.06	.43	11.33***		

주.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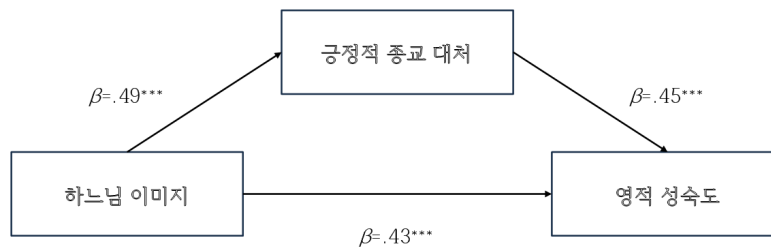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34, 95% CI [0.23, 0.47]).

이는 하느님 이미지와 영적 성숙도의 관계에서 긍정적 종교 대처가 부분 매개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Bootstrapping을 통한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Table 7> Significance Test of Indirect Effects Using Bootstrapping (N = 401)

		경로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간접효과						
하느님 이미지	→	긍정적 종교 대처	→	영적 성숙도	0.34	0.06	0.23	0.47

주. Bootstrap 표본- 10,000번 추출.



[그림 1] 하느님 이미지가 영적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적 종교 대처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Figure 1]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Religious Cop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Image and Spiritual Maturity

4. 하느님 이미지와 영적 성숙도의 관계에서 부정적 종교 대처의 매개효과

하느님 이미지와 영적 성숙도의 관계에서 부정적 종교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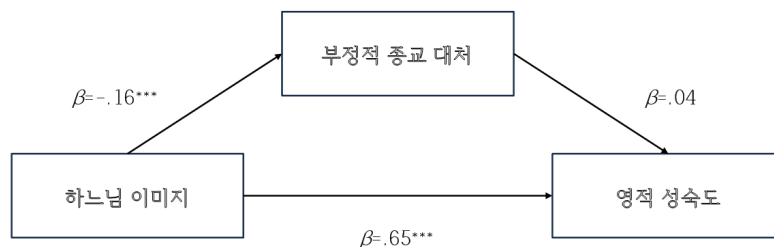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하느님 이미지는 매개변수인 부정적 종교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16$, $t=-3.22$, $p<.001$), 설명력은 3.0%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하느님 이미지가 영적 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beta=.65$, $t=16.99$, $p<.001$), 설명력은 42.0%였다.

반면 3단계에서 부정적 종교 대처를 투입한 결과, 부정적 종교 대처는 영적 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4$, $t=1.00$, $p>.05$). 이에 따라 부정적 종교 대처는 하

<표 8> 하느님 이미지가 영적 성숙도에 미치는 효과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Table 8> Regression Analysis Examining the Effects of God Image on Spiritual Maturity
(부정적 종교 대처 투입) (N = 401)

단 계	독립 변인		종속 변인	B	SE	β	t	R ²	F
1단계	하느님 이미지	→	부정적 종교 대처	-.23	.07	-.16	-3.22***	.03	10.38***
2단계	하느님 이미지	→	영적 성숙도	1.01	.06	.65	16.99***	.42	288.58***
3단계	부정적 종교 대처	→	영적 성숙도	.04	.04	.04	1.00	.42	144.78***
	하느님 이미지	→		1.02	.06	.65	16.93***		

주. *** p<.001



[그림 2] 하느님 이미지가 영적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종교 대처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Figure 2] Mediation Effect of Negative Religious Cop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Image and Spiritual Maturity

느님 이미지와 영적 성숙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V. 논의

본 연구는 가톨릭 청년을 대상으로 하느님 이미지와 영적 성숙도의 관계를 검증하고, 이 관계에서 긍정적·부정적 종교 대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른 논의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하느님 이미지는 영적 성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하느님 이미지가 영적 안녕감 및 영적 성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Choi, 2005; Clair, 1994; Hwang, & Song, 2012; Kim, & Hwang, 2012; Ryu, & Hwang, 2006). 또한 하느님 이미지는 긍정적 종교 대처와는 정적, 부정적 종교 대처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내재적 종교성향과 긍정적 종교 대처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와 맥을 같이하며(Cho, 2020),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이미지는 긍정적 종교 대처를, 징벌적 하느님 이미지는 부정적 종교 대처를 촉진한다고 제시한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Lee, 2009; Park, 2013). 이러한 결과는 하느님 이미지가 단순한 신념 차원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의미를 구성하는 내적 틀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긍정적 종교 대처는 영적 성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하느님 이미지와 영적 성숙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종교 대처가 정신건강과 영적 안녕을 증진시킨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An, 2018; Je, 2002; Ji, 2013; Kim, 2020; Jung, 2017; Jung, 2019; Park, 2013). 아울러 하느님 이미지가 영적 자원으로 기능함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Choi, 2005; Hwang, & Song, 2012; Kim, & Hwang, 2012), 하느님 이미지가 긍정적 종교 대처를 매개로 영적 성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경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종교 대처는 영적 성숙도와 유의한 직접적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매개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종교 대처가 신앙의 발달 수준 자체보다는 신앙 과정에서 경험되는 ‘영적 갈등(spiritual struggle)’이나 심리적 고통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한다(Ano, & Vasconcelles, 2005: 473-474; Pargament et al., 1998: 710-712; Park et al., 2018: 32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 종교 대처는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신앙 경험의 반응적 성격이 강한 반면, 영적 성숙도는 개인의 삶 속에서 형성된 비교적 안정적인 신앙 태도와 가치 체계를 반영하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두 변인 간 직접적인 관련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하위요인 분

석에서는 부정적 종교 대처가 영적 성숙도의 ‘개인 내적 자원’과 제한적인 관련을 보였는데, 이는 신에 대한 불만이나 신앙적 갈등과 같은 부정적 종교 대처 경험이 개인의 내적 신앙 자원과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정적 종교 대처는 영적 성숙도의 전체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특정 하위 영역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한 보다 정교한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의의는 하느님 이미지, 종교 대처, 영적 성숙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데 있다. 특히 하느님 이미지와 영적 성숙도의 관계에서 긍정적 종교 대처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가톨릭 청년의 영적 성장에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를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목 상담과 영적 지도 현장에서 긍정적 하느님 이미지 형성과 긍정적 종교 대처를 강화하는 개입 전략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긍정적 종교 대처가 영적 성숙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가톨릭 전통의 영성 수련을 청년 신앙 형성 과정에 활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성찰(Examen) 기도는 일상 경험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 스트레스 상황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긍정적 종교 대처와 연결될 수 있으며, 이나시오 영신수련의 복음 관상기도 또한 개인의 삶과 신앙 경험을 통합하도록 도와 위기 상황에서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찾도록 돕는 영적 자원이 될 수 있다.

이어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로 수행되어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고, 자기 보고식 측정 도구에 의존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하느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적 요인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영적 성숙의 발달적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 양육 태도와 같은 발달 변인을 포함한 통합적 모형 검증이 요구된다. 더불어 한국 가톨릭 문화와 신앙 맥락을 반영한 측정 도구의 정교화 또한 필요하다.

종합하면, 가톨릭 청년의 영적 성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종교 대처를 단순히 억제하기보다, 긍정적 하느님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긍정적 종교 대처를 강화하는 방향의 사목적·교육적 개입이 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접근의 이론적·실천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References

- An, S. B. (2018). *The Effect of Attachment to God on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Religious Cop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of Korea.
- Ano, G. G., & Vasconcelles, E. B. (2005). Religious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to Stress: A Meta-analysi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1(4), 461-480.
- Allport, G. W. (1950). *The Individual and his Religion*. New York, NY: Macmillan.
- Ban, S. H. (2006). Religion and Religious Coping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Christian Counseling*, 11, 139-155.
-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25). Statistics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2024. <https://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215042>
- Catholictimes (2012. 2. 20). Survey on Faith Life of Young Adult Catholics. Retrieved 2021. 4. 18., from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1202200203113>
- Cho, B. G., & Kim, B. W. (2009). Moderating Effects of Religious Cop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sity and Well-being of Catholic Young Adults. *Social Research*, 1, 83-109.
- Cho, C. H. (2020). *The Effect of Catholics' Religious Orientation on their Post-Traumatic Growth: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Religious Coping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Deliberate Rumin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Cho, H. Y., & Son, E. J. (2008). Mediating Effects of Religious Coping and Optim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 and Anxie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3), 773-793.
- Choi, E. K., & Kim, Y. H. (2015).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Religious Orientation, Religious Coping, and Anger Expression in Christi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36(1), 129-145.
- Choi, J. H. (2005). *Relationships among Ego Identity, God Image, and Faith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Anyang University.
- Clair, M. St. (1994). *Human Relationships and the Experience of God: Object Relations and Religion*. New York, NY: Paulist Press.
- Ellison, C. W. (1983).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4), 330-340.
- Fowler, J. W. (1981). *Stages of Faith*.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 Gorsuch, R. (1968). The Conceptualization of God as seen in Adjective Rating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7, 56-64.
- Hwang, D. H., & Song, J. A. (2012). Effects of God Image on Self-Esteem, Faith Matur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Korean Christian Counseling*, 23(2), 253-279.

- Je, S. B. (2002). Religious Coping and Mental Health.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26, 25-42.
- Ji, H. G. (2013). Effects of Posttraumatic Growth and Religious Coping on Subjective Well-being in Middle Adulthood. *Journal of Human Ecology Research*, 23, 139-152.
- Jung, A. N. (2019). *The Mediation Effects of Religious Cop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Jung, S. H. (2013). Moderating Effects of Spiritual Maturity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hristian College Students. *Faith and Scholarship*, 18(2), 107-133.
- Jung, Y. J. (2017). *The Relationship of Character Strengths and Religious Well-being among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 The Mediation Effect of Religious Cop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 Kim, J. H. (2020). *Cross-Cultural Validation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Brief Religious Coping Scale using Factor Analysis and Rasch mod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dong Global University.
- Kim, J. M. (2004). *Interpersonal Adequacy and Faith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Kim, J. Y., & Hwang, H. R. (2012). The Importance of God Image in Christian Counseling: Relationships among God Image, Spiritual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Christian Counseling*, 23(1), 263-286.
- Kim, M. H. (2009).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Children's Mental Health by Academic Stress Level and Stress Coping Sty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im, M. K., & Hwang, H. R. (2004).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Interpersonal Competence, Resilience, Life Satisfaction, and God Imag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5(4), 1281-1292.
- Kim, N. Y. (2002). A Study on God Image of Protestant and Catholic Students. *Gospel and Practice*, 30(1), 275-305.
- Lee, C. (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tholic Spiritual Maturity Invent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 Lee, G. H. (2009). *Religious Coping of Adolescents in Poverty: Focused from Kenneth I. Pargament's Religious Cop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 Lee, H. J. (2012). *The Study of Verification of Stress-Coping Adaptation model for Unwed Mother and Comparative Study on each Groups Classified by the Decision on the*

- Future of their Bab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Meissner, W. W. (1984). *Psychoanalysis and Religious Experi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Pargament, K. I. (1997).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Coping: Theory, Research, Practice*. New York, NY: Guilford Press.
- Pargament, K. I., Smith, B. W., Koenig, H. G., & Perez, L. M. (1998). Patterns of Positive and Negative Religious Coping with Major Life Stressor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4), 710-724.
- Pargament, K. I., Koenig, H. G., & Perez, L. M. (2000). The many Methods of Religious Coping: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RCOP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4), 519-543.
- Park, C. L., Holt, C. L., Le, D., Christie, J., & Williams, B. R. (2018). Positive and Negative Religious Coping Styles as Prospective Predictors of Well-Being in African Americans.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10(4), 318-326.
- Park, E. Y. (2013). *Transformation of the God Image and Religious Coping of Parents Who Have a Child with Childhood Canc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Park, K. H. (2000). *A study on God Representation and God Experience: from the Object-Relations Theory Perspectiv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Park, S. M.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 Youth's Maturity in Faith,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 Park, S. Y., Lee, S. J., & Hyun, M. H. (2012). Relationships among Intrinsic Religiosity, Religious Coping, and Gratitud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7(2), 449-460.
- Petersen, A. C. (1988).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 583-607.
- Rizzuto, A. M. (1979). *The Birth of the Living God: A psychoanalytic stud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yu, S. J., & Hwang, H. R. (2006). Relationship between God Image and Depression among Christi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Christian Counseling*, 11, 191-212.
- Song, H. N. (2017). Sturm und Drang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8(2), 1-3.
- Song, H. S. (2009). *A Study of Faith Status of Catholic Young Adul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wangju Catholic University.
- 조옥진 (2005). 영성과 심리상담. 서울: 가톨릭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Cho, O. J. (2005). *Spirituality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Seoul: Catholic Publishing House.